조계종 스마트교육, 승가교육 새 지평 열다

교육원 영상 강좌 '인기몰이'… 대폭 강화 계획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실시하고 있는 동영상 강좌가 종단 스님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현재 조계종 디지털대학에 등록해 강의를 듣는 일반 스님들이 300명을 넘었고,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조계종 교육원은 12월 18일 "2014년 법계별 연수교육 등 맞춤형 교육에 이어 스님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동영상 강좌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스마트교육으로 승가교육을 확장시킬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교육원의 동영상 교육은 2012년부터 표준교육과정 개편을 맞아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올해 3월에는 이들 콘텐츠를 모든 스님을 대상으로 개방했다.

이후 학인이 아닌 일반 종도 스님들의 관심과 문의들이 있어왔고, 강좌 등록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해인율원과 국제불교학교, 중앙승가대학교 등 단체 가입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 동영상 교육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시공간 제약 받지 않고 강의를 반복해 청취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다.

실제 강의에는 불교문화유산 전문가인 흥선 스님(직지사 주지)을 비롯해 종단과 현대윤리 중 청규를 강의하는 월암 스님, 불교와 동서철학의 권위자 김종욱 동국대 교수, 철학자이자 파워라이터 강신주 박사 등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교육원은 언제 어디서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바일러닝 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로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강좌 단체 가입 증가 추세
"인문학적 소양 쌓을 기회"
현재 14개 강의 서비스 중

이 같은 동영상 교육의 효과는 청암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인 스님의 E-메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청암사 학인 스님은 "산 속에 있어서 활동이 제한돼 있는데 강신주 박사, 김성철 교수 등의 주옥같은 강의를 들으며 인문학적 소양을 쌓으면서 불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고마웠다"면서 "수행과 소임을 살면서 틈틈히 강좌를 듣고 배움을 곁에 둘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말했다.

조계종 교육원 동영상 강의는 14개 강좌가 서비스될 예정이다. 기존 10개 강좌에서 '나의 공양고전 독법(강신주)'과 '스님들을 위한 경제이야기(홍종학 가천대 교수)' '고우스님과 함께하는 중국 선종사찰 순례' '지안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성지순례'가 추가 편성됐다.

수강을 원하는 스님은 조계종 디지털대학 홈페이지(www.edubuddha.net)에 가입한 후 교육원으로 연락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을 수 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석중 스님이 동영상 강좌를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시연하고 있다.

한편, 조계종은 내년부터 아침저녁 예불과 108참회 등 일상수행과정을 4급 승가고시 점수에 반영한다.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승가고시 일정과 개선사항을 확정했다.

이날 고시위원회는 4급 승가고시부터 조석예불, 사시불공, 108참회, 경전합송 등 기본교육기관 학인스님들의 일상수행과정 교육평가를 고시점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서 교육원은 지난 3월부터 각 기본교육기관과 합의 아래 학인스님들 일상수행을 체크해왔다. **신중일 기자**

종단협 회원 종단 연수 진행된다

종단협 18일 이사회서… 내년 예산 9억 원 확정

한국불교종단협회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가 회원 종단들을 중심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종단협은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등의 안건을 결의했다.

내년 사업 계획으로는 연중 행사인 신년하례법회를 비롯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불교단체 후원,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등 주요사업도 확정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회원 종단 스님(정사) 연수 교육이 포함됐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연수 교육은 3월 경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신도상담과 코칭 · 모바일 소통 등의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년하례법회는 1월14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봉행하며,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4~5월 다양한 봉축행사를 열기로 했다. 또 10월 중 종단협 주최로 제17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종단협은 불기 2558(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 7억1550만원, 특별회계 2억1300만원 등 9억2850만원으로 확정했다.

한편 종단협은 이날 이사회에 앞서 아이릭 아리바스 필리핀 총영사에게 태풍피해 복구지원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BBS TV, 수도권에서도 만난다

C&M · CJ와 런칭… 서울, 영서, 경기 지역 신규 진입

BBS 불교방송 TV가 케이블TV 송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BBS 불교방송 TV는 12월 19일 서울과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케이블TV업체인 C&M(씨앤앰)에 신규 런칭해 수도권 케이블 방송에 본격 진출했다. 또한 이에 앞서 12월 12일 CJ헬로비전의 상품을 저렴한 기본형 상품으로 전환해 강원(영서)지역과 경기 의정부 지역에 신규 런칭했다.

이에 따라 BBS 불교방송이 TV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2년 만에 케이블 TV가 청가구수 5백만, IPTV와 스카이라프 1천3백만 등 총 1천8백만 가구에서 BBS 불교방송 TV를 볼 수 있게 됐다.

BBS TV는 IPTV와 스카이라이프 진출에 이어 지난 2012년부터 케이블 TV 송출에 뛰어들어 티브로드, 현대HCN, CJ헬로비전 등의 전국망 케이블TV업체와 JCN울산방송, KCTA광주방송, TCN대구방송, 푸른방송, 남인천방송, 서경방송, 금강방송 등 지역 케이블TV 업체에 진출하는 등 전국망 확대에 나서면서 꾸준히 가청가구수를 확대해 왔다. **정혜숙 기자**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 합의기구 만들자"

조계종 화쟁 · 노동위, 19일 사회적 합의 요구 법회

수서발 KTX 민영화 시도로 불거진 철도 파업에 대해 불교계가 사회적 합의 기구를 정부에 촉구하는 법회를 열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와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는 1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철도 민영화 사회적 합의 요구 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은 인사말에서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서두르지 말고 국민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그 안에서 논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노동위원회는 12월 19일 철도 민영화 사회적 합의 요구 법회를 봉행했다.

논문부터 게임까지 대원불교상 수상자 발표

5개분야 선정…12월20일 시상식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원장 이종대)은 12월 20일 동국대 충무로 영상센터에서 제4회 대원불교문화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상자에는 △불교학술 저서 부문에 박광연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의 '신라 법화사상사 연구' △논문 부문에 강호선 불교학술원 HK교수의 '조선태조 4년 국행수륙재 설행과 그 의미' △기획 부문에 이채론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의 '불교문화 콘텐츠 대중화를 위한 엔터케이션 콘텐츠 교육기능성' – EBook 게임개발 기획 '달려라 탱' △기획 부문에 황국태 · 조미향 · 장인 · 조예 영상대학원 문화콘텐트학과생들의 페스티벌 기획서 '오감만족' △시나리오 부문에 김현정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생의 '황 소변소' 등이 꼽혔다. 수상자들에게는 불교학술분야(저서부문 600만원, 논문부문 300만원)와 불교창작분야(기획부문 각 300만원, 시나리오부문 400만원)로 나눠 총 19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 포교부장 송묵 스님이 포교대상 수상자들과 무진장 스님의 저자거리 포교원력을 이어가기 위한 만발공양을 하고있다.

"무진장 스님 저자거리 포교원력 잇자"

조계종 포교원, '무진장 스님 100재 기념 만발공양'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낸 무진장 스님의 100재를 맞아 조계종 포교원이 스님의 저자거리 포교원력을 잇는 행사를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2월 17일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에서 '무진장 대종사 100재 추모 어르신 만수무강 기원 만발공양 효행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효행잔치는 46년 전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수년간 어르신들과 고락을 함께 하는 등 저자거리 포교에 앞장 선 무진장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2000여 어르신들이 찾은 이날 행사에서 지원 스님과 포교원 직원, 포교대상 수상자들은 직접 어르신들에게 고기국을 비롯한 공양을 대접했다.

또 귤과 장갑, 떡 등을 묶은 선물세트 2500개를 각각 전달했다. 물품은 모두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한 포교원 직원과 대상 수상자들이 모연한 것으로 총 2000여 만원 상당이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3년여 만에 출간한 '목탁소리' 법상 스님의 화제의 신간

법상 스님의 불교 교리 콘서트

출간되자마자 커다란 호응을 일으키며 재판

붓다 수업

웰빙, 힐링, 뉴에이지, 영성, 치유, 명상, 시크릿, 마인드풀니스 등의 원천인 붓다!

진지한 깨침의 글들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법상 스님이 3년 만에 『붓다 수업-법상 스님의 불교 교리 콘서트』를 출간했다. 시공을 초월하여 대중과 소통해 온 저자는 붓다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구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금은 붓다 시대, 이제 붓다 수업은 불교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들어야 할 인생 수업이다. 이 책은 진리를 표방하는 단체며 가르침이 많아 옥석을 가리기 어려운 시대, '힐링'이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시대에 '그 모든 것의 원천'인 붓다의 가르침을 담아놓았다.

■ 법상 스님 지음 | 신국판 372쪽 | 15,000원

무아(無我)와 소녀시대의 홀로그램, 당신은 실재하는가?
'목탁소리' 법상 스님의 마음공부로 이끄는 신개념 불교교리서

민족사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생각의 끝에도 머물지 말라

■ 성법 스님 지음 | 신국판 304쪽 | 13,500원

"종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영혼과 순수성을 담보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콕콕 정곡을 찌르듯 불편한 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성법 스님의 까칠한 불교 이야기.

한국불교의 현실을 바로 보고 바른 불교를 세우고 있는 저자의 경책 『생각의 끝에도 머물지 말라』.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하고, 무지와 탐욕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이라고 말합니다."

– 머리말 중에서 –

Tel. 02)732-2403~4 민족사

올바른 종교생활을 위한 촌철살인

천당과 지옥은 번지수가 없다

"천국을 탐(貪)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은 탐착의대상이 아니며, 탐착은 그대로 지옥이다"

■ 김진태 지음 | 신국판 184쪽 | 12,000원

세상 사람들이 종교계를 걱정하는 시대, 위험하고도 잘못된 환상에서 벗어나 올바른 종교생활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촌철살인, 불교계를 정화하는 최고의 처방이 '수행'이라고 강조하는 호법신장 김진태 교수의 《천당과 지옥은 번지수가 없다》.

사람을 변화하게 만드는 책의 향기가 있다면 이런 글이 아닐까? 절제된 문장에 담겨 있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마디 한마디는 저자의 깊었던 고뇌를 엿볼 수 있다. 붓다와 예수께서 이 시대에 계시다면 분명히 이 한마디를 하셨을 것 같다. "선재 선재(善哉 善哉)로다!"라고.

– 동화사 연수국장 혜문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

도서출판 동승동 Tel. 02)732-2403~4